

# 野 특검 표결 vs 與 특감 의총... 이번주 '김여사 매치'

### 민주, 14일 본회의서 세번째 처리...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 윤 대통령 재의요구 이후 28일 재표결 관건...국힘 이탈표 촉각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연달아 폐기되자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쳐진다고 가정하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를 하락과 당정 쇄신 움직임 등이 이탈표 규모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려는 민주당은 특검법의 세부 조항, 특히 여권이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는 특검 추천권 조항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회유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 방식을 거론한 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희석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민심은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당

의원들도 잘 알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협의 여지를 열어두면 여당도 마냥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당 흔들기에 맞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및 의원총회 표결 여부 등을 두고 내용이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당내 기류는 표결 없이 합의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낸다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친한계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야권의 공세에 맞설 최소한의 명분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라고 보고 있다.

한 당직자는 "특별감찰관 의총은 표결 없이 합의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합의로 간다는 것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친유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 담화와 한 대표의 다음 날 메시지 이후 특별감찰관 문제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한 중진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한 대표가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하듯 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특별히 반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서도 '尹 정권 규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을 열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서 국정농단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 민주 광주시당, 운동본부 출범...8곳에 천막 설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8명과 전현직·추첨 최고위원, 핵심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을 규탄한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규탄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면서 "검찰은 수많은 정황과 증거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저모터스 추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벌'이라는 면죄부를 내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청한 기자회견을 보고 더 이상 눈 감고 귀 닫은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지금부터 국민들과 김건희 여사의 추가조작 의혹, 양형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농단 의혹 등을 날같이 밝히기 위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출범식 이후 광주 8개 지역위원회 분부별로 천막을 설치하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여야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

### 오늘 정식 출범...전공의 단체·야당 참여 미온적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절반의 기대 속에 11일 출범한다. 야당과 다수의 의사 단체가 선뜻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대표자들이 총리·부총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협의체의 실효성은 커졌다.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축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입을 모아 탄핵을 외친 임헌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거취에 따라 이들 '미래 의사'들의 참여 가능성도 다소나마 커질 수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논의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뜻을 올린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

여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당장 협의체는 '여의정'의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곳이 참여한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 전공의들은 수능이 나올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여전히 협의체에 회의적이다.

반쪽짜리 출범이지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함께 의사 출신 한지아(조선)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내정됐다.

협의체 출범과 맞물려 임헌택 의협 회장의 불신임 투표도 향후 의정 간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협 대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들의 바람대로 임 회장이 물러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의 새 지도부와 연대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들이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임 회장이 탄핵당하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게 의료계 내부의 전망이다. /연합뉴스

## 국힘, 오늘尹 정부 국정성과 토론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오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당정 간 협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10일 당 관계자는 전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는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당초 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일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다음 날 정부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광주경영자총협회 공고

## - 2024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

### 「2024년 청년친화 조직문화개선 및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참여기업 신청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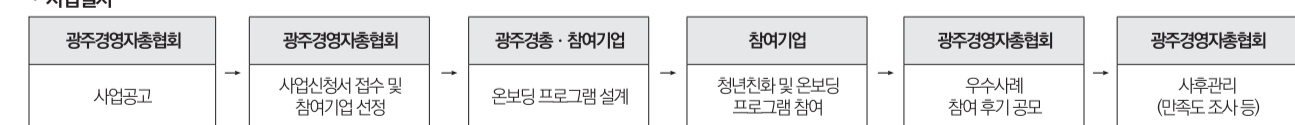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 청년 친화 직장 적응 지원으로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 가치를 높여 장기근속과 기업 성장력을 고취하고자 「2024년 청년친화 조직문화개선 및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1.

### 광주경영자총협회장

#### 1 공고요요

- 공고명 : 2024년 청년친화 조직문화개선 및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
- 사업목적
  - CEO, 중간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으로 공감대 향상
  - 청년 신입직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조직 적응 조기인착으로 중도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 사업주관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 운영기관 : 광주경영자총협회
- 사업일자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청년친화 조직문화(관리자 대상) 및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신입직원 대상) 설계 운영
  - 1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사내 교육장에서 교육 운영
  - \* 참여기업 교육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유사 프로그램별 묶어서 기업 참여(순회형) 진행 예정 (교육차, 장소 등 일일 진행)
  - 교육 참여 관리자 및 신입직원 리더, 웰컴키트(8인원 상당) 제공

#### 2 프로그램(안)

\* 교육프로그램(안)은 신청기업별 맞춤형 설계로 하단 프로그램(안) 참고

- 〈관리자〉
  - 오프닝 : 청년친화 조직문화 리더십 역량강화, 고민이 많은 MZ, 교생이 많은 기성세대 등
  - 소통공감 : 감성세대소통 리더 스피치, 세대공감 커뮤니케이션, 행복한 소통전략 등
  - 리더십 : 리더의 자기혁신, 오센틱 리더십, 중간관리자 360도 리더십 등
  - 관리 : 탁월한 리더를 위한 변화관리 및 갈등관리 전략, 성과관리 등
- 〈신입직원〉
  - 오프닝 : 신규입사자의 행복한 조직적응 온보딩, 직장예절과 비즈니스 매너 등
  - 소통공감 : 협업 커뮤니케이션, 협업마인드, 행동유형분석을 통한 의사소통 등
  - 협업 : 목표달성 협업, 팀빌딩, 행복한 협업전략 비고민 단란 등
  - 리더십 : 전략적 셀프리더십, 역량강화 특강, 직장인의 자기관리 필요성 등

#### 3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 참여기업 : 광주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사업자등록 기준 광주 소재 자사, 공장 등 포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등

\*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회 : 고용보험·보험가입정보조회·사업장총괄카드 내대규모기업(비해당)확인

- 참여대상 : (관리자) 직급, 나이, 성별, 담당업무 제한 없음 (신입직원) 최근 1년 이내 채용된 청년층 신입직원(만 34세 이하) (담당업무 제한없음)

- 신청기간 : 2024. 11. 11.(월) ~ 12. 13.(금) \* 참여기업 접수순으로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일정(11월~12월)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관리자, 신입직원 프로그램 중 택1 혹은 2가지 다 선택 가능
  - 광주경영총 홈페이지 사업신청서(사식)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 4 문의 및 접수처

- 신청장식 :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2024. 11. 11 ~ 12. 13 (5주간)
- 신청서류 : (사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명부 각 1부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파일 이메일 제출(gjef\_gjef@naver.com) 및 접수 확인(전화)
- 문의처 : 광주경영자총협회 일자리사업부 청년성장팀 (전화) 062-654-3427